

# 지리산 자락 힐링 명소 준비한 남원으로 오세요

허브·꽃·나무 복합정원 허브밸리  
 식물 속삭임 들으며 마음 치유  
 백두대간 생태교육 전시관  
 생태·문화·역사 다채로운 체험  
 생명의 숲, 운봉 서어나무 숲  
 한여름 기온 15도 '여름 휴식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한반도 생태계의 핵심축인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자원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전국 최초로 조성된 트리하우스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휴양시설 내 지상 2m의 높이에 편백나무로 만들어져 숙면을 취하는데 효과적이다.

남원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이 있다. 특히 남원 운봉에는 지리산 허브밸리를 주축으로 생태, 힐링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도 어렵고 무작정 어디로 떠나야 할지 모르다면 남원으로 가보는 것은 어떨까. 남원의 힐링 여행지를 소개한다.

◇**허브향을 만끽할 '지리산 허브밸리'** =남원시는 허브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우리나라 최대 철쭉 군락지이자 겨울 산행의 명소인 지리산 바래봉 입구 운봉고원에 허브밸리를 조성했다.

지리산 허브밸리는 28ha 규모의 동서양 허브와 다양한 꽃, 나무 600여종이 심어진 복합 정원으로 현재 허브테마파크, 지리산자생식물환경공원, 허브체험농원,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조성된 아로마테라피관 등이 들어서있다. 각종 허브체험 등이 가능하며 지난해 주변에 오헤브 데이 호텔까지 들어서 체류형 관광도 얼마든지 가능해졌다.

최근에는 지리산 허브밸리 복합도파라 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 블록체험이 가능한 키즈존까지

지 시설, 새로운 볼거리도 생겼다.

또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식물원의 식물이야기'와 '숲 속 소풍, 마음치유'를 주제로 한 해설·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 꽃과 나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 전시관 및 백두대간 에코 롯지 & 트리하우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한반도 생태계의 핵심축인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자원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방문하기에 제격이다.

특히 이곳에서는 지리산의 동식물과 지리산이 품어 준 사람들의 이야기, 백두대간의 생태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3D 영상과 함께 만날 수 있고, 지리산 자생곤충을 사육하는 곤충은실 등도 관람이 가능하다.

전시관 뒤편에는 숙박시설인 에코롯지도 자리하고 있어 쉬어가기 좋다. '에코롯지'는 생태관광 숙박시설 6동, 오토캠핑장 31면 모형체험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히 캠핑족들에게 인기가 많다.

전국 최초로 조성된 트리하우스는 체험·휴양시설로 최고다.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최적의 명소'라고 불리는 트리하우스는 백두대간 끝자락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휴양시설 내 지상 2m의 높이에 편백나무로 만들어져 숙면을 취하는데 효과적이다. 피톤치드 향기가 가득해 힐링, 명상, 산림욕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생명의 숲, 운봉 서어나무 숲** =남원 운봉에는 특별한 숲도 있다. 2000년도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마을 숲 부문 대상을 차지한 생명의 숲, 운봉을 행정마을 서어나무 숲이 그

것이다.

지리산둘레길 제1구간에 있는 운봉을 행정마을 서어나무 숲은 약 1600㎡(500평)의 면적에 평균 수령 200년 이상의 서어나무 100여 그루가 가족처럼 웅기종기 모여 한 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어 남원만의 또 다른 힐링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 곳은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전'에서 춘향이 짝을 속속에서 붉은 치마를 나누기며 한 마리 나비마냥 그늘을 타던 곳이기도 하며, 숲속 기온이 늘 섭씨 15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여름 휴식처가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나만 알고 싶은 특별한 여행지를 찾고, 코로나에 지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남원을 선택하라"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 군산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보수

군산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공공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개·보수 사업에 나선다.

군산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기고, 더 나아가 전국 및 지역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게이트볼장 1면과 부대시설을 갖춘 개정 게이트볼장이 조성되고, 지경 게이트볼장은 내·외장재 및 인조잔디 등을 교체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해 시민에게 개방된다.

소용시민체육공원은 올 하반기까지 노후시설 정비 및 신규시설 조성을 통해 재탄생된다.

노후 풋살장과 축구장은 기존 시설을 철거한 후 이전 설치되며, 그라운드골프장과 농구장은 시민체육공원 부지 내 신규 설치돼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다.

월명주경기장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경사로 설치, 노후화된 마감재 및 균열부 개·보수작업 등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서군산 지역에는 축구장 1면과 부대시설을 갖춘 서군산 축구장이 올해 말까지 완료되고, 오는 2023년에는 수영장 및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복합체육센터가 조성될 예정으로 시민 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체육활동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삶의 희망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한 단계 높아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규석 기자 nogusu@

## 정읍시 경관디자인 공모 선정 7억여원 들여 도시경관 정비

정읍시는 전북도에서 주관한 '2021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비 2억2200만 원을 확보하고, 2022년까지 경관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은 도시 지역의 다양한 디자인 개선을 통한 경관가치 인식 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경관 형성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비 포함 총사업비 7억 4000만원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화된 행정 개시대를 개선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행정 안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벤치와 조명설치, 조경 식재, 노후 벽면 등을 정비해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도시경관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디자인 사업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확립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층 개선된 정읍시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상업지역 40층까지 주거지역 30층까지

### 익산시 건축물 높이 제한

익산시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층수를 제한하는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만들어 활용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상업지역 및 상업지역과 인접한 준주거지역은 건축물의 높이를 40층까지 허용한다.

제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과 기타 준주거지역은 3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을 오는 20일까지 공고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이견이 없으면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익산시에는 별도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무분별하게 고층 건물이 들어서 조망권과 도심 경관을 해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분단의 상징서 평화의 상징으로...DMZ 활용 방안 모색

### 세계평화여성연합·유엔한국협회 전주서 DMZ Peace Zone 심포지엄

세계평화여성연합(회장 문훈숙, '이화 여성연합')과 유엔한국협회(회장대행 이호진)는 지난 3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DMZ Peace Zone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 한국전쟁 발발 71년을 맞아 분단의 상징인 DMZ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DMZ, 과거 현재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대면과 온라인으로 200여 명이 참여한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갈등과 분단의 상징인 DMZ에 대한 도전 과제와 비전을 공유했다.

문훈숙 여성연합 회장은 환영사에서 "심포지엄을 통해 많은 국민이 DMZ 문제와 유엔을 연결해 생각하는 논의가 확산되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 세계 및 유엔과 함께 신통일한국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에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축사자로 나선 이상재 전주평화연합 호남·제주 지구 회장은 "이제 우리는 분단된 DMZ를 잇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오늘 행사가 그 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는 세계평화학술인연합 호남·제주지구 오수영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중남 전남대 교수는 'DMZ 평화적 공간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DMZ의 설정 배경과 현재까지의 역사를 설명하고 자연생태 보존 방안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오광석 전북대 교수는 'DMZ 생태 및 평화공원 조성'을 주제로 남북한이 접매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든 실질적인 DMZ의 개발은 어렵지만 디지털 DMZ 평화공원을 조성해 온라인 가상체험을 통한 교류를 제안했다.

박홍순 유엔한국협회 부회장은 'DMZ의 평화적 활용과 UN'이라는 주제를 통해 DMZ에 유지할 수 있는 UN 기구의 분야와 실질적인 유치전략 및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